

여성 징병제

202211807 정형민

먼저, 글을 쓰기 앞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 남성분들에게 질문을 하겠다. 남성분들은 군대를 갔다 왔는가? 아니면 가야 하는가? 그렇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와야 하는 징병제 사회이다. 여기서 나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군대를 살 수 있는 인원이 옛날 보다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과연 여성 징병제 제도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가 있을까? 한 보도 기사에 따르면, 스위스가 여성의 입대를 늘리기 위해 징병제를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여성 징병제에 대해 검토를 하거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여성 징병제를 실시 해서 여성들이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는다 치자 과연 남성들과 동등한 훈련을 시킬까? 이러한 문제점도 있다. 일단 남자들은 현재 1년6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남성들은 사회에서 쌓을 수 있는 커리어를 못 쌓는다. 그래서 평등성을 위해 여성도 군복무를 하여야 한다는 말은 정부나 사회에서 그만큼 보상을 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왜 보상을 해 줘야 되냐는 반대 의견도 있을 것이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대학교로 시간으로 따자자면 1학년을 마치고 반학기를 지낼 수 있는 시간이다. 한마디로 남자들은 군대에 있을 때 군대를 안간 사람들은 자기 커리어와 자격증 등 나중에 취직을 할 때 필요한 커리어를 빨리 딸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여성 징병제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성들만 군대를 가는 것은 성 평등성에 맞지 않는다 고로 여성들도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 부분에서의 팩트를 말하자면, 헌법 재판소에서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은 성평등권에 침해 하지 않는 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의 여성 징병제가 채택이 안된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투를 수행을 하는데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적합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남성에 비해 일부 여성이 더 신체 능력이 뛰어날 수 있지만, 개인의 능력을 시험이나 검사를 마련 할 수 있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또한 여성들은 월경, 임신, 출산 등의 생리적 특성이 전투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여성 징병제를 실시 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서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성 징병제를 실시 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만 실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은 당연히 천조국 보단 예산이 적다. 그리고 갑자기 여성 징병제를 실시 했다 치자 그럼 우리가 남성이 군대를 가서 국방예산을 정했는데 그만큼 남녀가 동등한 군복무를 하기 위한 시설 등을 갖추기 위한 예산을 추산하기 어렵다. 그리고 여성이 상관이 될 경우 상명하복을 이용한 범죄나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는 못한다. 여기서 상명하복이란 상관이 명령하면 하관은 복종해야 한다는 뜻이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는 곳이다 그래서 최적의 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함도 있다. 헌법 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 논의 할 필요가 없고 헌법상 군대를 가는 것은 기본 의무 상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여자의 신체적 특성, 한국의 국방안보현실 등을 고려 했을 때, 남성 징병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다. 남성과 여성하면 빼 놓을 수가 없는 문제가 또 성범죄에 관련된 문제도 있다. 현재 사회에서도 성범죄를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는 폐쇄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그런 공간에서 성범죄가 안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여성 징병제를 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몇가지가 더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징병제를 무조건 반대해야 하는가? 그건 아니다 징병제를 실시 해야 되는 사람들이 납득 할 만한 이유는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꼭 징병제를 실시 하지 않고 해결 할 수 있는 방안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저출산이기 때문에 따라서 당연히 병력이 감소 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병역이 감소로 인한 상비병력의 유지를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인구절감과 군병력 충원이 어려워 여성의 입대가 필요하다면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를 모집하는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꿀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갑자기 모병제로 바뀌었다고 치자, 그러면 군대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문제와 군 예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여, 남성은 현재처럼 똑같이 징병제로 이어가고 여성은 모병제로 갑자기 모여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천천히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이런 방안을 선택을 하면, 여성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군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병역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군 문화를 조금씩 바꿔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말했다 싶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생활을 하다보면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다고 당연히 말할 수 없다. 미국은 천조국인 만큼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 등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인식이 엄청나게 좋다. 따라서 미국의 여군은 같은 남성 군인과 똑같은 취급을 하고 자기 전으로 보고 있다. 고로 여성 병사를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닌 자기의 전우로 존중을 해줘야 한다. 또한 여성 병사를 위한 시설 등을 준비 해야 될 부분이다. 여성간부나 여성 장교는 진급율이 저조하다고 한다. 따라서 여성 간부도 남성과 동등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대를 가면 안된다는 여자가 애국심이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옛날 조상부터 많은 전쟁과 싸워야 하는 일들이 많았다. 예를들어 일제강점기때의 유관순 등 나라를 위해 힘쓴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현재 주위 친구들이나 군대를 가야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물론 군대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가기 싫다는 말이 많이 하는 남성이 많다. 이런 가기 싫다는 말을 해도 애국심이 없다고는 못한다. 그렇다 똑같이 여성들도 군대를 안가지만 애국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도 국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국가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성들도 겁내지 않고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징병제를 긍정적으로 생각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반론을 해보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로 여성들도 군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의견에 대해 반론은 해보고자 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 능력에서 밀리는건 사실이다. 그래서 육군에서 보병이나 포병 등 힘을 주로 쓰는 보직이나 역할 등을 여성보다 남성이 더 잘한다는 부분도 맞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성은 취사병,의무병,행정병 등 군대를 운영하기 위해 꼭 없어서는 안되는 병과에 들어가면 된다는 의견이 있다. 여기서 취사병은 남성들도 지원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병과는 맞다. 하지만 의무병은 쉽게 들어 갈 수 없는 병과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고, 지원서를 보면 의료에 관련된 것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지원을 해도 들어 갈 수 있는 확률이 극한이 적다. 물론 의료에 대해 잘 알거나 자격증이 있어 의무병에 합격이 된다 한들 모집하는 인원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는 것도 제한 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유연하고 작기 때문에 침투작전 같은 상황에서는 더 유리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반박해 보자면 여성이 작고 유연하기 때문에 건물 사이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건물에서의 침투나 CQB 같은 근접 전투를 생각해보자 남성은 여성보다 힘이 더 좋기 때문에 근접 전투에서는 밀릴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글을 끝내기 앞서 긴 글을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여성 징병제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여성 징병제가 실시가 되어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걱정 할 부분이 너무 많다. 국방예산에도 착오가 생길 수 있고, 여성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도 부담이 없진 않는 부분이다. 남성이 군대를 가 있는 동안 여성도 자기 성에 대해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성평등을 침해 한다고는 볼 수 없다. 남성과 여성 신체적 특성상 여성은 임신과,월경 등 신체적 특징 때문에 남성보다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기사에서나 티비에서 여성 징병제에 대해 갑자기 의견이 나오는 소식이 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북한에서와 문제도 있었던 지라 국방력에 대해 걱정 할 수 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여성 징병제를 실시해서 병역자를 늘리는 것 보단 미국처럼 국방력을 올리기 위해 군대를 더 신경을 쓰거나 정부에서 신경을 써주었으면 한다. 또한 국방예산은 정부 전체적인 자원 배분에서 우선순위가 낮다. 심지어 국방비를 차지하는 비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국방예산을 늘리고 국방력을 키워서 물론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만약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방력

에 힘을 더 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